

사라지거나 파괴된 작품들로 다시 쓴 미술사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노아 차니 지음, 이연식 옮김

“새로운 세력이 자신과 다른 믿음의 체계와 문화를 지닌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과거 비잔틴 제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상파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오스만의 정복자들은 하기가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했는데, 이 사원에서 귀중한 모자이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지 않고 숨겨졌다. 드넓은 벽과 돔과 천장을 회반죽으로 덮었다. 오스만 사람들은 이상승배라고 여겼던 모자이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 보호되었다.”(본문 중에서)



작품은 일부만 남아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만들었다는 작품 15점 가운데 3분의 1은 당대와 후대 문서에 남아 있을 뿐이다. 적어도 8점이 사라졌다. 그뿐 아니다. 아테네 조각가 피디아스와 베네치아 화가 조르조네, 독일 알브레히트 뒤러와 같은 거장들 작품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했다.

저자가 잃어버린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백의 미술사를 이루는데” 대단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예술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작품들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가가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조각 ‘스포르차 기마상’이 현존한다면 “‘모나리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도라 마르의 초상’이 화재로 불타지 않았다면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 곁에 걸려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15세기 중반 영향력 있는 화가 로히어르의 삶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의를 주제로 한 회화 4점은 브뤼셀 시청 황금의 방에 걸리기 위해 주문받았다. 그러나 9년 전쟁(1688-1697) 중에 프랑스군이 브뤼셀을 폭격했는데, 당시 화재로 모두 소실된다. 다행히 앞서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이들이 남긴 기록과 드로잉, 회화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작품으로 보이는 십자가상이 2010년에 발견됐으며 더블린의 예수회 신학대학 구석에 걸려 있던 ‘체포되는 그리스도’는 1987년 카라바조의 잃어버린 걸작으로 확정됐다.

저자는 “사라진 예술품을 나열하는 것은 전투에서 죽은 이, 위패에 새겨진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작품을 대부분 위대한 예술가가 제작했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인이 소유했으며 따라서 역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때 더욱 커진다”고 말한다. (재출판·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페테르 파울 루벤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앙기아리 전투’ 모사



아게산드로스 등이 만든 그리스 원본 복제품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새로 나온 책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가수이자 시인인 정현우가 펴낸 첫 번째 창작 시집이다. 동주문학상 수상작인 ‘슬픔을 들키면 슬픔이 아니듯이’를 비롯해서 68편을 4부로 나누어 실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묻는 시적 사유의 깊이와 활달하고 개성적인 문장이 두드러진 시편들이 애잔하면서 몽클한 감정을 자아낸다. (창비·9000원)



▲공공역사란 무엇인가=독일 역사 교육자들이 쓴 공공역사 입문서다. 공공역사는 역사학과 전문 역사학자라는 범위를 넘어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역사 실천을 의미한다. 공공역사의 기본 개념과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공공역사의 다양한 현상을 담았다. 또 일반인이 공공역사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직업을 구체적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시한다. (푸른역사·2만원)

같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맹신을 깨트린다. (코리북스·1만7600원)

▲리얼리티 버블=캐나다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과학이란 렌즈로 본 우리 세계의 진실들에 관한 이야기로 담았다. 책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다룬다. 1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생물학적 맹점을, 2부 ‘우리 삶을 떠받치는 것들’은 사회적 맹점을 다룬다. 마지막 3부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은 인

▲2021 대한민국 제테크 트렌드=해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제테크 노하우와 전망을 소개해온 ‘조선일보 제테크 시리즈’ 신작이다. 부동산, 주식, 해외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22명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불릴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떤 제테크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하는지 전한다. (모멘텀·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종이와 물감이 만나 생기는 질감과 부드러운 분위기를 겨울이라는 계절의 이미지에 담아 그려냈다. 주인공을 리나를 따라 ‘쓰속쓰속’ 길에 가득 쌓인 눈을 치우는 소리, ‘뽕뽕뽕’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소리, ‘딱’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눈 멍치를 던지는 소리, ‘뚝뚝뚝’ 눈을 멍치는 소리 등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겨울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의 만남을 통해 두 주인공이 각각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 파천 등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소년 소녀의 눈에 비친 당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서유재·1만2000원)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개화기 조선을 배경으로 신분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찾아 가는 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이용익과 김관사와

▲이상한 붕어빵 아저씨=소박한 붕어빵 하나에 누구보다 값지고 커다란 마음을 담아 파는 우리 동네 붕어빵 아저씨 이야기다. 가난하고 오갈 데 없어 경로당에 숨어있던 도깨비 청년이 우리 동네 붕어빵 아저씨로 돌아온 것. 정세현 작가는 도깨비 청년과 붕어빵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도움의 손길은 잊지 않고 또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어린이작가정신·1만2000원)

부엌과 밥상서 더 그리운... 딸이 기억하는 엄마, 박완서

엄마 박완서의 부엌

호원숙 지음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건 잠수 있지만, 맛있는 건 절대로 안 먹는다”(박완서 산문집 ‘호미’ 중 ‘음식 이야기’)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가 살던 ‘노란집’을 물려받은 딸은 엄마의 부엌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엄마의 치맛자락에 늘 희미하게 배어 있던 음식 냄새는 여지껏 나를 지탱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사랑의 힘”이었다고 말한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딸은 다섯 살 손녀가 ‘할머니, 뚝국에 밥 말아줘’라고 말할 때, 엄마의 소설 ‘그 여자의 집’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떠올리며 ‘늦가을의 무’에 대해 생각한다.

세미콜론이 펴내는 ‘땡’ 시리즈 7번째 책 ‘엄마 박완서의 부엌-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은 고(故) 박완서 소설가의 딸인 호원숙 작가가 ‘그리운 엄마의 10주기’에 펴낸 에세이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느 날에는 문근근하게 데워졌다가 어느 날에는 보글보글 끓기도 했을”(편자 김지향) 저자는 책 갈피마다 엄마를 비롯해 가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추억과 엄마의 주옥같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오직, 딸이라서 가능한 박완서 문학의 코멘터리’인 셈이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딸은 지금 자신이 엄마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족, 지인들과 또 다른 추억을 하나 하나 쌓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소박하게 풀어낸다.

저자가 기억하는 젊은 날의 엄마는 ‘조선 요리제법’이라는 오래된 요리책을 ‘전쟁과 평화’, ‘죄와 벌’ 등과 함께 두고 읽는 모습이다. 큰 술에 메주콩을 삶거나 숯불화

로에 섭산적에 굽는 요리를 하고, 톱툰이 ‘현대문학’이나 ‘사상계’를 보면서 잠시 누워 있던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딸은 마당에 올라오기 시작한 머릿털을 따서 씹을 씹을 때 엄마의 이런 문장을 떠올린다. “새로 지은 밥을 강된장과 함께 부드럽게 찐 호박잎에 싸 먹으면 밥이 마냥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움의 끝에 도달한 것처럼 흐트하고 나른해진다. 그까짓 맛이라는 것, 고작 허겁에 불과한 것이 이리도 집요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을 줄이야.”

또 엄마의 첫 소설 ‘나무’에 등장하는 만두에 대한 글과 함께 언제나 축제 같았던 집안의 만두 빛의 모습에 대해 들려주며 소설 ‘그 남자의 집’에 등장하는, 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떠올리며 “마치 기싸움이라도 하듯” 민어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한다.

책에 등장하는 나박김치, 비빔국수, 대구, 느티떡 등과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오래된 추억을 함께 소환한다. (세미콜론·1만12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